

‘5인 5색’ 도슨트, 수묵의 향연 다채롭게 물들이다

지난 9월 1일 목포 문예회관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닷을 올린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폐막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수묵비엔날레가 종반으로 향하면서 뒤늦게나마 수묵의 향연을 느끼기 위해 전시장을 찾는 관람객이 늘고 있다.

이번 수묵비엔날레가 유명작가들의 대작 전시는 물론 수묵의 재해석을 통한 한국현대미술의 재구성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데, 최전선에서 작품 해설을 맡고 있는 도슨트의 해설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동안 관람객과 소통을 해온 명지윤, 정금희, 박채연, 박소연, 배해운 씨 등 5명의 도슨트를 소개한다.

먼저 명지윤 씨는 해의 작가들의 레지던시 작품을 전시중인 비엔날레 1관 목포문화예술회관 도슨트를 맡았다. 서울에서 내려와 활동을 하는 그는 도슨트를 하면서 예상치 못한 돌발적인 경험을 많이 했다. 미리 스크립트를 써서 관람객을 맞는 편인데 갑자기 단체 인원이 들어올 때는 팀을 나눠서 해설을 할 때도 있었다는 것.

그는 “미리 짜놓은 순서와 다르게 해설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그럼에도 어렵지 않게 현장에서 대체할 수 있었던 건 전적으로 관람객과의 유기적인 소통이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목포의 비엔날레 2관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은 유명 중견작가와 젊은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수묵의 재료성과 현대성을 한 자리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곳 전시장에서 도슨트로 활약하는 정금희 씨는 역사교사 출신이다. 교사출신답게 자상한 음성으로 조선시대 ‘전신사조’나 감정어입 등의 미술용어를 소곤거리듯 설명한다.

정 씨는 “미술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미술사학 공부를 해서 평소 미술에 관심이 많아 도슨트를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다”며 “이번 비엔날레는 관람하는 연령층이 다양하고 대중화되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아마도 그것은 전통 화법에 시대성을 아우르는 기획 콘셉트 때문인 것 같다”고 언급했다.

진도의 남도전통미술관에서는 최근 왕성한 창작을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폐막 일주일 앞... 전시장 찾는 관람객 북적 명지윤·정금희·박채연·박소연·배해운 씨 관람객들과 소통 ‘인기’



수묵비엔날레 폐막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시장을 찾는 관람객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명지윤



정금희



박채연, 박소연



배해운

용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구현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며 “몸소 체험하고 느끼다보니 산공부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수묵비엔날레는 목포와 진도 외에 전남 시군에서 다채롭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해남 대흥사는 호국불교의 공간이 되는 상징적인 사찰이다. 대흥사에서 도슨트를 하고 있는 배해운 씨는

해남의 공간성과 작가와의 서사를 감칠맛 있게 들려준다.

배 씨는 “무엇보다 지역민들과 대흥사를 찾는 외국인들이 수묵화를 매개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기뻐했다”며 “저 또한 관객들과 소통하고 작품 안에 다양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가는 것이 흥미로웠다”고 말했다.

수묵비엔날레는 오래된 미래와 새로운 과거가 공존하고 교차하는 장이다. 또한 고향을 사랑하며 지역과 함께 하는 이들이 있어 매력과 의미를 더한다.

한편 제3회 수묵비엔날레는 오는 31일 두 달의 장정을 마치고 막을 내린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섬은 물길 느끼며 가는 여정 중요”

신안 찾은 ‘빛의 예술가’ 터렐, 노대도에 미술관 건립 논의

“신안에서 발견한 노대도는 특별했어요. 그 자체로도 아름다운데, 작은 섬이 갖기 어려운 물이 흐르고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이 살았고, 밭도 있었죠. 발견하고서 너무 기뻐요.”

‘빛과 공간의 예술가’로 불리는 미국 설치 미술가 제임스 터렐(80·사진)은 열흘간 전남 신안군에 머물고 있었다.

지난 21일 신안군 ‘2023 문화의달’ 행사에 초청된 그는 신안군의 제안으로 노대도에 9개 작품을 설치하는 ‘제임스 터렐 미술관’ 건립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그는 행사 프로그램으로 마련된 ‘아티스트 토크’에서 빛과 공간으로 구축한 자신의 작품 세계를 소개했다.

강연 후 만난 터렐 작가는 섬에서의 작업에 대해 “한국도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거의 물 위에 떠 있는 국가”라며 “특히 다리가 없는 섬은 독립된 공간이고 배를 타고 바다의 물길을 느끼면서 가는 여정 자체가 무척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섬은 물 중앙에 있는데, 제게 있어 물은 굉장히 특별한 물질”이라며 “물은 투명하고 크리스탈 글라스에 담았을 때 리플(ripple, 잔물결)이 움직이면서 형태를 만들기도 한다. 이런 부분은 스스로 빛이 되기도, 물질이 되기도 한다. 그 투명성 자체가 무척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터렐은 빛을 활용해 공간 예술을 선보이는 세계적인 작가다. 일본 유명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강원도 원주의 미술관 뮤지엄산에도 제임스 터렐관이 있다. 이곳에 있는 그의 대표작 ‘스카이스페이스’,



‘호라이즌 룸’, ‘간츠펠트’ 등은 빛의 변화에 따라 공간이 변주하는 경험을 안긴다. 지난해엔 방탄소년단 RM이 서울의 한 전시에서 그의 작품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공개해 관심을 모기도 했다.

터렐은 노대도에 설치할 작품에 대해선 합구하는 대신, 작품 세계의 근간인 빛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는 “뮤지엄 산에 가보면 빛이 어떤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빛 자체가 하나의 매스(mass), 덩어리로서 비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며 “많은 예술가가 빛을 묘사하고자 빛을 이용하는데, 제 작품이 특별한 것은 빛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빛 자체에 중점을 두면 빛이 가진 영적인 힘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터렐과 노대도의 만남은 1025개 섬(무인도 포함)을 가진 신안군(군수 박우량)의 ‘1도(島) 1뮤지엄’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된다. 각 섬에 미술관과 박물관 등 총 26곳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15곳이 완료됐다. 이 중에는 터렐과 같은 현대미술 거장도 추진하는 프로젝트도 있다. 김환기 화백 고향으로 그의 생가가 있는 안좌도에는 일본의 야나기 유키노리가 설계한 플로팅 뮤지엄을 건립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립예술단 공연 서울 집중...광주 최하위권

서울 70% 이상...광주·전남·북 0.6%, 울산은 0%

국립극단 등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소속 8개 국립예술단 공연의 서울 집중이 심화되면서 문화중심도시를 표방한 광주지역의 공연 수는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의힘 김승수(대구 북구) 국회의원이 22일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예술단체 공연실적’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2023년) 8개 국립예술단의 공연은 총 1040회였으며, 이중 891회가 서울에서 이뤄졌다. 이는 지난 2021년 75%(1048회·1394회)와 2022년 70%(916회·1389회)보다 급증한 수치다.

올해 국립예술단별 서울공연 집중도는 정동극장이 95%(397회/416회)로 가장 높았으며, 국립극단 92%(217회/237회), 국립현대무용단 88%(58회/66회), 서울예술단 85%(49회/58회), 국립합창단 77%(24회/31회),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76%(74회/98회), 국립발레단 57%(51회/89회), 국립오페라단 47%(21회/45회) 순이었다.

서울을 제외한 8개 국립예술단 지역별 공연 횟수는 경기도가 35회(3.4%)로 가장 많

았으며 대구 17회(1.6%), 경남 14회(1.3%), 충남·강원이 각각 12회(1.2%), 세종 10회(1.0%), 경북·제주가 각각 7회(0.7%), 광주·전북·전남이 각각 6회(0.6%), 대전·부산이 각각 5회(0.5%), 충북 4회(0.4%), 인천 3회(0.3%)에 불과했으며, 울산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최근 3년간 국립예술단별 서울 집중도는 991회 중 947회를 서울에서 공연한 국립극단이 96%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국립현대무용단 88%(156회/177회), 서울예술단 85%(189회/222회),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79%(212회/269회), 정동극장 74%(1,043회/1,407회), 국립합창단 72%(81회/113회), 국립발레단 62%(139회/226회), 국립오페라단 30%(126회/413회) 순이었다.

김승수 의원은 “국립 전체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예술단의 공연이 서울에만 편중된 것은 문제”라며 “모든 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비수도권은 물론,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연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판소리 흥보가 보유자 이난초 ‘진:소리’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 국악공연... 27일 서석당

참되고 진한 소리, 민족 정한을 모두 다 토해내는 ‘진(盡) 소리’.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지난 7월부터 김형섭, 양신승, 서영호 등 전통문화재 보유자들의 공연을 매달 선보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 오는 27일 오후 3시 국악 공연 ‘진:소리’를 서석당에서 펼친다.

공연 주제인 ‘진:소리’는 아티스트들의 긴 호흡을 우리 전통 문화의 맛과 멋으로 연계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번 10월 무대에는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흥보가’ 보유자 이난초가 오를 예정이다.

동편제는 진중한 통성(배 위에서 뱉어내는 성음)과 우렁찬 소리를 중심으로 하는 판소리 유파인데, 이난

초가 동편제 5대손 고(故) 김상용에게 전수받았다.

이 씨는 (사)강도근동편제 판소리보존회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남일 춘향국악대전 명창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현재 목원대 음대 한국음악과 겸임 교수. 2002년에는 프랑스 국립극장에서 여섯 시간 넘는 춘향가를 완창했으며, 국내에서도 30여 회 왕창발표회를 가졌다.

무대에서 선보이는 동편제 판소리 ‘흥보가’는 알려진 대로 해학과 익살이 가득한 흥보와 놀부의 재담이 주를 이룬다. 서민들의 애환을 대변하는 서사는 오랜 세월을 거치며 민중에게 큰 인기를 끌어들였다.

한편 다음 달 24일에는 김상연의 대금 산조, 12월



이난초

15일에는 박미정의 판소리 공연이 예정돼 있다. 관람 신청은 전 좌석 사전접수제로 운영(선착순 30명)한다. 자세한 내용은 전통문화관 문의.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건물 리모델링



갈라강판 지붕공사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농막 옥상스틸방수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